

보도자료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6. 7. 28.(화) 14:00
(지면) 2026. 7. 29.(수) 조간

배포 2026. 7. 28.(화) 06:00

민관 손잡고 서천갯벌 생태계 복원 나서

- 260억 원 규모 민관 협력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업무협약(MOU) 체결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7월 28일(화)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기아(주), 충청남도, 서천군, 해양환경공단, 한국해양재단과 함께 ‘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* 생태복원사업’ 추진을 위한 6자 간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* 갯벌과 염생식물, 해조류 등 해양과 연안생태계가 흡수·저장하는 탄소

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화성시 매항리에서 기아(주)가 100% 투자한 제1차 사업에 이은 두 번째 민관 협력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다.

제2차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 진행되며, 사업비는 총 260억 원 규모로 전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로 추진된다.

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내 갯벌 일대로, 협약 기관들은 블루카본 확대를 위해 폐양식장을 블루카본 정원으로 조성하고 갯벌을 염생식물 군락지와 바닷새 서식지로 복원한다.

아울러, 갯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갯벌탐방로를 조성하고 블루카본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.

이날 협약식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, 기아(주) 대표이사 송호성, 충청남도 도지사 박수현, 서천군 군수 유승광,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강용석,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김양수 등 관계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다.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,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 될 것”이라며, “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전 분야에서 기업의 환경·사회·투명경영(ESG)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, 앞으로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	책임자	과 장	김현성 (051-773-5310)
		담당자	사무관	최종일 (051-773-5327)



□ 사업 개요

- (사업명) 민관협력 서천 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
- (사업내용) 폐양식장을 갯벌로 복원하고 염생식물을 조성하는 한편, 부대시설 설치*를 통해 블루카본 확대 및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

* 갯벌탐방로, 전망대, 홍보센터 등 설치 등



- (사업주체/방식) 해수부, 기아, 지방정부(공모) / 민간(해양환경공단) 위탁
- (사업기간) '26 ~ '29
- (총사업비) 260억 원